

장흥 정남진 토요일시장 작년 70만명 찾아 1000억 매출

담백한 키조개와 표고버섯에 1등급 한우를 함께 먹는 '장흥 삼합'이 일품인 장흥군 정남진 토요일시장이 진화하고 있다.

한 해 70만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다녀가고, 1000억원의 지역 특산물 판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로 중단됐던 토요일시장 공연도 최근 다시 선보이면서 정남진 토요일시장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12일 장흥군은 "정남진 토요일시장에 지난해 69만85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 특산물 판매 효과가 1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를 살펴보면 가장 관광객이 많은 요일은 토·일요일이었고, 주말과 휴일에만 39만명 가량이 정남진 토요일시장을 찾아 전통시장의 맛과 멋을 느꼈다.

이는 강변에 마련된 주차장(700)의 주차대수 등을 추산해 집계된 수치다. 토요일에는 1000여대의 차량이 이 주차장을 이용했고, 관광객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토요일 하루에만 평균 1000여명이 정남진 토요일시장을 찾았

값싼 음식·축제 관광객 급증

한우고기 6253마리분 팔려

세월호 중단 토요일공연 재개

다.

이처럼 정남진 토요일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값싸게 팔고, 다양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말마다 관광객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흥겨운 축제가 펼쳐지면서 더욱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

정남진 토요일시장은 생약초, 버섯 등 장흥군에서만 생산되는 청정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상설시장 점포와 주말 시장 점포, 민속광장(토속음식점), 할머니들의 노점 등 200여 곳의 점포가 마련돼 있다.

'장흥 삼합'을 주로 파는 한우 정육점이 30여 곳에 달하고, 이곳에서 고기를 구입한 뒤 직접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식당들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이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

는 점도 인기 비결 중 하나다.

한해 토요일시장에서 팔리는 한우의 수만 해도 6253마리, 무려 344억원의 매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 장흥댐, 정남진 천문과학관, 호박나라·쇠뿔구리·장수풍령이 생태체험마을 등의 관광상품도 토요일시장의 성공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흥겨운 토요일시장 정기공연도 다시 무대에 올려진다.

장흥군은 '세월호' 사고 이후 일시 중단했던 토요일시장 정기공연을 지난 7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오는 14일에는 7080통키타공연, 라이브가스 공연, 폼바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1일에는 벨리댄스와 라이브공연이 결연된다.

공연은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펼쳐진다.

한편 정남진 토요일시장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전국 최초 토요일시장으로 개장돼 2008년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서도 가장 성공한 전통시장으로 평가받았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한 해 70만명이 찾는 장흥 정남진 토요일시장에서 지난 7일 토요일공연이 열려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장흥군 제공>



모내기 체험 즐거운 동심 광주·전남 생태 유아공동체 어린이들이 12일 강진군 성전면 오산마을에서 열린 '친환경 급식쌀 농촌현장 체험행사'에서 전통 모내기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강진 자연과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인 10ha에서 연간 50t의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장흥 전통차 '청태전' 국제적 가치 인정

슬로푸드 국제본부 '프레지디아(맛지킴이 두레)' 선정

장흥지역 전통차인 '청태전(靑苔錢)'이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장흥군은 "슬로푸드 국제본부와 국제 생명다양성 재단이 청태전을 '슬로푸드 프레지디아(Presidia=맛지킴이 두레)'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영리 국제기구인 슬로푸드 국제본부는 소멸위기에 놓인 토종종자와 음식의 목록인 '맛의 방주'(Ark of Taste)에 등재된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

자, 전문가를 연계해 '프레지디아'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보호 육성하고 있다. '프레지디아'는 맛의 방주를 지키는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맛지킴이 두레'로 불린다.

'맛의 방주'에 등재된 76개국 1500종 가운데 국제적 보존가치가 있는 60개국 40여 종이 '프레지디아'로 현재 선정된 상태다. 앞서 청태전은 지난해 9월 '맛의 방주'에 등재됐다. 슬로푸드 국제본부는

지난달 23~24일 장흥 청태전 생산농가 방문과 청태전 시음 등 엄격한 실사를 벌인 끝에 청태전을 '프레지디아'로 최종 선정했다. '프레지디아'로 선정된 청태전에 대해서는 국제 공동상표를 쓸 수 있도록 마케팅과 컨설팅 등 지원이 따른다.

한편 청태전은 삼국시대부터 장흥 등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지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차이다. 지난 2007년 장흥군이 복원에 성공, 현재 농가의 고소득원으로 자리잡는 등 지역경제에 큰 흡수역할을 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현대삼호重·영암경찰, 통근버스 교통안전 교육



현대삼호중공업과 영암경찰서는 지난 10일 홍보관에서 통근버스 업체 담당자와 운전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암 지역의 최근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각종 사고유형 사례를 소개하고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소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영암경찰서 신관재 경위는 "통근 버스의 경우 많은 인원을 운송하는 만큼 각별한 교통안전과 준법정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목표와 영암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과 협력회사 임직원을 위해 70여 대의 통근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클린영암! 명품영암! 복지영암!

새영암 건설에 함께 할 여러분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영암군수



전동평(田東平)

도의원



우승희(禹承熙)



김연일(金然日)

군의원(비례대표)



고화자(高花子)

군의원(가선거구)



박찬중(朴燦鍾)



이하남(李夏男)



박영배(朴泳培)

군의원(나선거구)



김철호(金澈鎬)



강찬원(姜贊元)

군의원(다선거구)



조정기(曹正基)



박영수(朴永守)

영암교육지원청 직원일동 · 영암경찰서 직원일동 · 영암소방서 직원일동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직원일동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직원일동 · 월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일동 · 한국전력공사 영암지점 직원일동 · 농업은행 영암군지부 직원일동